## "반도체 단지 성패 '인재양성' 힘 모은다"

시·도-지역대학-민주당 간담회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 집중 논의 우상호 "당 차원 정책 만들 것"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상생 1호로 추 진중인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의 선결과제인 첨 단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도와 지역대학, 더 불어민주당이 손을 잡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5일 전남대학교에서 당 ·정·학 간담회를 열고 지역대학의 반도체 학 과 신설과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을 집중 논의 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6 명, 민영돈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장, 조순 계광주전남전문대총장협의회장등광주·전남 지역 대학총장 14명,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 실장, 김종갑 전남도 전략사업국장 등이 참석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 열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 원 확대'와 관련,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 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다른 학과라면 몰라도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을 수도권에 한다고 하면, 필연 적으로 관련 산업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발상이 반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우상호 더불어 도체학과 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학에 대 만들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균형발전 한 정책 전체를 그렇게(수도권에) 몰고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

> 그러면서 "심지어 교육부 공무원들이 난색 을 표하며 어렵다고 이야기 하니 오히려 강압 적으로 다그쳐서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만드는 절차의 문제도 반교육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 위원장은 "광주·전남 지역 대학의 실정과 이 함께 협력해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해 보겠다"며 "민주당이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당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보겠다" 고 약속했다.

강기정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세종시를

정책을 시작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초광역협력 사업 예타 면제로 균형발전을 확대했다"며 "윤 석열 정부에서는 교육과 산업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균형발전 3.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어 "광주·전남 상생 1호 정책인 300만평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의 핵심도 인재양성에 있 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대학・광주시・전남도 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또 "광주시도 정부 기조에 맞춰 인재 양성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고, 전남도·전북 도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 고 있다. 시는 전남도·각 대학과 함께 수도권

집중, 균형 발전 정책의 하나인 인재 양성 문제 와 산업 고도화에 차곡차곡 대응하겠다"고 밝

전남도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광주와 전 남은 기업 이전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불리한 지역으로,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양성만 이뤄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며 "RE 100이야말로 기업이 광주·전남으로 올 수 있 는 여건을 만드는 가장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특히 "탄소제로 기업 중심의 정책에 대한 제 도적 기반이 구축된다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이 광주・전남으로 대거 올 수 있는 미 끼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수출, 기업성장 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석한 지역 대학총장들도 "첨단 반도체 산 업을 수도권에서만 육성하는 것은 지방대 소멸 을 넘어 지방 경제 위축과 지역 소멸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등의 의 견을 제시했다. /길용현 기자



협치마을 계획실천단 발대식

4일 광주시 동구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치마을 모델사업 마을계획실천단 발대식'에 참가한 마을계획추진 단・실천단, 주민 등이 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 /동구 제공

## 성추행·음주운전에도 버젓이 의장 당선

민주당 텃밭 광주 기초의회 몰염치 지난  $6\cdot 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을 드 이며, 김 의원은 의장 선거에서 14표를 얻었다. 광산구·동구, 물의 전력 의원 선출 지못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한 광주 기초 의회에서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의 원들이 잇따라 의장에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러냈던 민주당이 여전히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

광주 광산구의회는 5일 임시회를 열어 민주 당 김태완 의원을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광산구의회 정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은 14명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초선 시절이던 2019년 노래방에서 일행과 연인 관계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 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다.

당시 3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증거 지 못한다"며 "광주가 지방선거에서 최저 투표 불충분 등을 사유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형사처벌은 피했으나, 공인으로서 처신이 적 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일었다.

김 의원은 의장 출마 후 "경찰 수사에서 무혐 의를 입증받았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주 민이 무죄를 믿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광산구의원들은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갑・을 지역위원회 간 양보나 합 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비뽑기'로 후보를 뽑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동구의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 력이 있는 민주당 초선 의원이 의장직에 올랐

전날 전반기 동구의회 의장에 선출된 김재 식 의원은 2011년 1월 음주운전으로, 약 한 달 뒤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 았다.

동구의회는 정원 7명 가운데 5명이 민주당소

김 의장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선거 공 보물에도 숨기지 않고 공개했다"며 "평생 다시 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슴에 담고 살 겠다"고 소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어쨌거나 큰 문 제는 일단락됐거나 본인이 사과한 사안"이라며 "아예 기회마저 박탈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되 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기우식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끊임없이 혁 신을 요구받는 민주당이 아직도 변화를 보여주 율을 기록한 이유도 민주당 때문이다"고 지적 /윤영봉·임채민 기자

## 강기정 시장님, 당황하셨어요? 첫 정례조회 토크쇼 방식 진행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선8기첫직원정레조 회를 기존의 당부사항 전달 방식에서 탈피해 '공직자와 토크'로 진

지난 1일취임식직후 진행한 MZ세대 공직자

들과의 '도시락 토크'에 이은 두 번째로, 직원 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입장은 물론 민선8기 시정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 등을 공유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님 당황하셨어요?'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시청공직자와 토크'는 패널로 자 원한 4명의 공직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강 시장 이 즉석에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청 공직자와 토크' 는 시종 웃음과 박수가 넘치면서도 때론 직원들의 예상치 못한 날카로 운 질문이 터져 나왔고, 강 시장도 광주시정에 임하는 자세와 철학 등은 진지하게 답변하는 한 편,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재치있게 받아넘기 기도 했다.

토크를 지켜본 한 직원은 "시장의 일방적 당 부 말씀보다 오늘처럼 격의없이 직원들과 소통 함으로써 상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장과 공직 자가 민선8기 시정에 의기투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길용현 기자

